



소개

칼리버 101 체인

18K 핑크 골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글로시 블랙 하이세람®으로 완성한
대담하고 현대적인 새로운 디자인

주요 정보:

- **여성 워치메이킹의 정수:** 독창적인 주얼리 워치 디자인에 기계적 정밀함과 미적 창의성을 담아, 진귀한 주얼리 앵글 워치의 유산을 이어 가는 타임피스
- **전통과 기술의 조화:** 클래식한 주얼리 디자인과 모던하고 혁신적인 소재의 만남
- **소형화 기술의 정수:** 칼리버 101, 정밀함과 전문성이 집약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기계식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

예거 르쿨트르가 새로운 칼리버 101 체인을 공개하며 칼리버 101 하이 주얼리 워치 컬렉션을 확장합니다. 독보적인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하이 주얼리의 미학과 파인 워치메이킹의 기술력을 정교하게 결합한 타임피스입니다. 조각 작품을 연상시키는 18K 핑크 골드(750/1000) 앵글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칼리버가 자리합니다. 브릴리언트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디테일의 사선형 밴드와 깊이감과 광택이 돋보이는 블랙 하이세람® 밴드가 교차적으로 배치되어 대담하고 현대적인 타임피스를 완성합니다.

칼리버 101: 소형화 기술의 혁신

소형화 기술: 시계가 휴대할 수 있는 크기로 작아지기 시작한 16 세기 초부터 워치메이킹의 역사는 정확한 시간 측정과 소형화를 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품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내구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기술적 한계가 뒤따랐고, 워치메이커들은 이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19 세기 중반부터 기계적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디자인과 장식이 가능한 초소형 무브먼트를 개발하며



독보적인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880 년 소형 에나멜 및 점세팅 시계에 도입한 초소형 르쿨트르 칼리버 7HP 와 1908 년 제작된 1cm² 남짓한 크기의 르쿨트르 칼리버 6EB 가 있습니다.

듀오플랜의 혁신: 1920 년대 들어 손목시계가 포켓 위치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어울리는 작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시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예거 르쿨트르는 1925 년에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듀오플랜을 선보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듀오플랜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무브먼트입니다. 한 층에는 이스케이프먼트를, 다른 층에는 배럴과 톱니바퀴를 배치해 기존 칼리버에서 기어 트레인이 차지하던 공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케이스백에 세팅된 평평한 크라운으로 메인스프링을 감을 수 있다는 점 역시 독창적인 설계였습니다. 르쿨트르 매뉴팩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1929 년 칼리버 101 을 선보였습니다. 듀오플랜 구조를 기반으로 한 칼리버 101 은 정확한 시간 측정과 초소형 크기를 동시에 구현하며 소형화 기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길이 14mm, 폭 4.8mm, 두께 3.4mm(부피 0.2cm³)의 칼리버 101 은 74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졌으며, 무게는 나비 두 마리 정도에 해당하는 단 1g 입니다. 밸런스 휠은 시간당 21,600 회(3Hz) 진동하며, 메인스프링은 33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컴퓨터 지원 설계, 레이저 커팅, CNC 가공 등 후대에 등장한 기술의 도움 없이 이처럼 정교한 초소형 무브먼트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당시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칼리버 101 은 탄생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직사각형 기계식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라는 기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무브먼트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예거 르쿨트르가 자체 제작한 주얼리 위치는 물론 여러 유서 깊은 메종의 타임피스에도 탑재됐습니다.

정확성의 유산: 지난 90 년간 소재, 기어 트레인 디자인 및 생산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칼리버의 크기와 기본 구조는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5 세대에 이르는 최신 칼리버 101 은 총 98 개의 부품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부품은 크기가 매우 작아 세심한 조정과 마감이 필요하며, 칼리버를 전담하는 전문 아틀리에에서도 이 초소형 무브먼트를 조립할 수 있는 숙련된 위치메이커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고도의 기술과 정밀함, 오랜 인내가 요구되는 작업으로, 98 개의 부품을 조립하는 데에만 40 시간이 소요되며, 연간 생산량은 수십 개에 불과합니다.

칼리버 101 체인: 현대적인 여성미를 표현하는 대담한 디자인

주얼리와 시간의 만남: 주얼리 위치의 역사는 18 세기와 19 세기 유럽 왕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휴대용 시계는 특권과 부를 상징하는 희소하고 귀중한 소장품이었습니다. 금세공, 젼스톤 세공, 에나멜 장인, 젼세팅 장인들이 정성을 기울여 장식한 시계와 주얼리 예술은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20 세기 초에는 손목시계가 여성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주얼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초소형 칼리버 101 이 지닌 무한한 창작 가능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칼리버 101 체인을 선보이며 오랜 유산을 새롭게 이어갑니다. 새로운 타임피스는 '체인'이라 불렸던 1955 년의 유명한 듀오플랜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당시 모델은 폴리싱 처리한 18K 핑크 골드(750/1000) 링크를 엮어 완성한 체인 브레이슬릿이 특징입니다. 이 링크 디자인은 새로운 칼리버 101 체인 뱅글의 측면을 장식하는 입체적인 디테일로 재해석되었습니다.

전통적인 시계 디자인의 재해석: 그랑 메종의 디자인 부서는 타임피스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주얼리를 디자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케이스부터 시작하는 대신 브레이슬릿의 형태와 젼세팅, 장식을 먼저 디자인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추가했습니다. 기존의 시계 디자인 순서를 뒤집은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300 시간 이상의 기술 연구 및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 칼리버 101 체인은 클래식한 하이 주얼리의 코드를 따르는 동시에, 짙은 블랙 컬러와 눈부신 광택이 돋보이는 세라믹 복합 소재 하이세람®을 사용해 전통적인 디자인과 첨단 소재 기술을 조화롭게 결합했습니다.

골드와 첨단 세라믹으로 조각한 작품: 모든 타임피스는 각 제품을 위한 전용 몰드를 매번 제작하여 주조하는 18K 핑크 골드(750/1000) 캐스팅 공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주조 과정을 마치면 표면을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36 개의 하이세람® 홈을 섬세하게 마감하여 테두리를 깔끔하게 세공한 뒤, 다이아몬드를 세팅할 미세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주사기를 사용해 음각 홈에 액체 상태의



하이세람®을 주입합니다. 소재가 핑크 골드의 표면과 수평을 이루면 정밀하게 조절된 압력과 열처리로 경화합니다. 마지막으로 섬세한 폴리싱 과정을 거쳐 깊고 풍성한 컬러와 거울 같은 반사광을 완성합니다.

창작의 자유를 기념하는 타임피스: 예거 르쿨트르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숙련된 쟈세팅 장인이 158 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수작업으로 세팅합니다. 이어 블랙 래커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을 갖춘 초소형 워치를 뱅글에 결합합니다. 새로운 칼리버 101 체인은 예거 르쿨트르의 미니어처 워치메이킹과 하이 주얼리 분야의 탁월한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동시에, 전설적인 칼리버 101 이 선사하는 자유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기리는 작품입니다.



상세 정보

칼리버 101 체인

케이스: 18K 핑크 골드(750/1000)

크기: 18.60mm x 5.98mm x 6.75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01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33 시간

다이얼: 블랙 래커

젬스톤: 다이아몬드 158 개(약 2.73 캐럿)

스트랩: 18K 핑크 골드(750/1000), 하이세람®,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손목 사이즈 160~165mm

레퍼런스: Q2842270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에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